

정은경 장관 쪽방촌 방문,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6월 10일(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창신동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창신동 쪽방상담소는 2003년 개소하여, 종로구 근처 쪽방주민들에게 고충상담, 물품지원,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창신동 쪽방촌에는 약 180명 주민이 한 평 남짓 쪽방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표적 여름철 취약계층인 쪽방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 ▲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 위험 정보 전파, ▲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 유형별 보호, ▲ 냉방기기, 냉방물품 지원 등을 통한 폭염부담 완화, ▲ 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

먼저 정은경 장관은 창신동 쪽방상담소 ‘온기창고’를 방문하여 선풍기, 얼음물 등 냉방용품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쪽방촌으로 이동하여 쪽방 내 공용에어컨 설치 및 가동 현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와 집중 호우 등에 대한 대비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어 30년 이상 쪽방에서 홀로 거주 중인 어르신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 속에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에는 창신동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쪽방주민 대상 안부 확인 및 방문 건강관리 상황과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쪽방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애쓰는 종사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격려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난 주 발표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며, “쪽방주민 분들이 이번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창신동 쪽방상담소 현장방문 개요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044-202-3070)
		담당자	사무관	정재은 (044-202-3074)



□ 개요

- (일시) '26.6.10.(수) 14:00~15:00 (60분)
- (장소) 창신동 쪽방상담소(서울 종로구 종로54길 29-3)
- (참석) 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복지정책관, 서울시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장, 종로구복지교육국장, 창신 제1동장, 쪽방상담소장 등
- (주요내용)
 - 쪽방촌 폭염·폭우 대비 상황 점검
 - 쪽방상담소 종사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 방문 계획(안)

시 간(소요)	내 용
14:00~14:10(10')	○ 도착 및 은기창고 참관
14:10~14:15(5')	○ 쪽방촌으로 이동 및 환경 점검
14:15~14:25(10')	○ 쪽방주민 방문
14:25~14:30(5')	○ 쪽방상담소로 이동
14:30~15:00(30')	○ 시설 라운딩 및 현장 간담회